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보 『우리네 아이들』 서기 1990 년 5 월 24 일 인쇄 5 월 26 일 발행일 제4권 1호 통권 7호

우리네 아이들

1990. 5.

제 7 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짜 임 새 ■

생각해 봅시다 : 혜영, 용철이의 어린뉘를 기리며	1
기획 : 택아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3
여성문제시리즈 : 가사 노동에 관하여 김영희	7
탐방기사 : 성남지역의 “들풀회”를 찾아서	14
함께 알아 봅시다 : 전세 값 폭등과 주택 문제 이태윤	16
올바른 생활문화를 위하여 :	
왜, 지금 곧 생활문화 운동을 시작해야 할까? 이기연	22
지역위원회소식란 :	25
연합회 소식란 :	27
동요란 : 바람, 감자꽃	

이번호에 실린 그림은 창신동 개구장이 어린이방과
봉천동 한우리 택아소 어린이들의 작품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 혜영, 용철이의 어린 뉘를 기리며 ●

“혜영아! 용철아!”
“너희 먼저 보내고 내 어찌 살거나, 내 어찌 살거나”
— 지난 3월 9일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나가면서 차가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 아이들을 지하 셋방에 두고 문을 잠그고 일나간 사이 불이나 싸늘한 밥상과 요강만이 놓인 방에 갇혀 누구의 도움 한번 받지 못하고 남매가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

이 사건이 결코 그들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기에 혜영, 용철이의 부모님과 택아소 어머니들을 모시고 택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성문밖 교회에서 위령제를 지내게 되었다.

혜영이 어머니와 같이 일하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잃은 설움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한 어머니가 쓰신 조문을 여기에 실는다.



부모님 조사문

먼저 혜영이, 용철이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부모님을 나무랄 수는 더욱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찢어지는 가슴으로 통곡해도, 통곡해도 시원치 않은 혜영이 용철이의 이 비극이 어찌 부모의 잘못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근처에 있는 유아원을 찾았으나 경제적 부담은 고사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 맡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유아원은 많습니다.

저 역시 직장을 다니려고 소위 정부에서 운영한다는 새마을 유아원을 찾아 갔었습니다. 규모도 크고 시설도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만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자녀라면 가능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의 기분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고 공무원들 보다는 우리가 살기가 더 팍팍한데 그들만 사람이요 우린 사람도 아닌가!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야한단 말인가!

이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년전 일이었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제 이웃에 작지만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택아소를 알게되어 만 4년이란 긴 세월동안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보호해야 할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장시간 일에 시달려야 하는 우리들, 이렇게 자식과 일에 치여서 어수선한 이때 혜영이와 용철이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이럴수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일 나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그 누가 남의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혜영이 용철이를 빼앗아간 이 현실의 부조리 함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 비극이 우리의 가슴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혜영이 용철이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는 세상에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가진자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스럽고 미래의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갈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에 더 이상 굶주림과 슬픔과 불안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혜영이 엄마!

이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하는 엄마들 모두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납시다.◎



■ “3월 25일 성문밖교회에서 열린 위령제” ■

●● 탁아정책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순 서

1. 탁아수요원인과 실태
2. 현행법제의 문제점
3. 관 주도 탁아소의 문제점
4. 향후과제

그동안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의 문제와 빈민, 공단지역의 방치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탁아소 설치와 그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누누히 강조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을 토대로 개량적이거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제의 내용과 탁아정책이 현탁아 실태와 탁아수요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서 향후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탁아수요의 원인

탁아수요는 무엇보다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에 그 요인이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요인으로는 다른 여러가지 중에서도 전세값 폭등과 물가상승, 자녀의 교육문제 등이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생계곤란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 하겠다.

현재 전국의 맞벌이 부부가 전국적으로 151

만쌍(보사부 추정)이 있고 위와 같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혼여성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기혼여성 취업으로 인한 아동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통계에 의하면 엄마가 일을 나가고자 할때 ‘문을 잠그고 출근 또는 길거리에 방치’가 37%, 집안식구나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가 35%가 되고 있어 취업으로 인한 아동의 방치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 하겠다. 아동은 늘 사고의 위험속에 있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부모는 매우 커다란 죄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방치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한편 교육기회의 차단으로 상급학교에서도 학습이 뒤떨어져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현 탁아수요 대상 아동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151만명이고 이중 집에서 돌볼수 있는 아

동을 제외하면(보사부 추정) 82만명이라 한다. 이에 대한 보사부의 탁아대책으로는 92년까지 8만7천명(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의료부조자 자녀, 군수나 구청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자녀)을 대상으로 탁아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2. 현행 법제

1) 아동복지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서 규율참고) 1982년 2월 12일 보사부는 새마을 유아원이 등장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중 탁아시설 설치 근거를 삭제하였다가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 시행령상에 탁아 시설 설치 근거에 따라 탁아 관련 문제를 규율하겠다고 한다.

2) 시행령의 문제점

(1) 범형식의 문제

‘국민의 중차대한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에 정부가 편의적으로 제정 변경할 수 있는 시행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우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제정, 변경토록하는 ‘의회입법주의’에 반한다. 여기서 탁아문제를 아동의 문제, 여성노동자의 문제, 저소득층의 문제를 포괄하는 복지개념으로서 아동복지법이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의 문제와는 별도의 규정이 요구된다.

(2) 지원대상의 문제

① 지원대상의 협소성 : 시행령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자를 국·공립탁아소 우선입소 및 교육료감면 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부조자의 기준이 월소득 7만원이하로서(원래 4만6천원, 5만4천원이었는데 탁아입법추진과정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 됨.) 비현실

적인 기준인데다(이는 거지 수입도 안된다.) 실제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중 탁아대상아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복지정책의 목적이 국민의 자립구조를 돕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가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상을 우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실제 탁아소를 이용하는 부모의 월소득은 40만원에서 50만원이고 주거상황은 월세 및 전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현실적인 지원대상의 확립으로 복지제도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② 운용의 자의성 : 우선입소 순위 및 교육료감면 대상자중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자’라는 기준은 매우 애매 모호하여 그간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서 있어온 구청간의 갈라먹기, 통반장에 대한 회유수단, 선거시 악용등 운용상의 자의성이 매우 높아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3) 주무부서의 이원화

현재 새마을 유아원중 탁아시설은 보사부(원래 내무부소관이었다가 이첩됨. 88 시립탁아소는 서울특별시, 직장탁아소는 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농번기 탁아소는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탁아행정의 일관성에 기초한 효율적인 추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4)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보사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3%이고 그중에서도 복지 예산은 매우 낮다.

올해 정부의 기초 정책이 복지에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바뀔에 따라 탁아예산도 원래 700억정도 제출하였으나 조정과정에서 삭감되었다 한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의지 여하에 따라 복지에 관한 예산은 뒤로 밀리고 삭감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수요가 절대부족한 탁아사업의 활

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은 무엇보다도 입법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어야만 하겠다.

(5) 비영리 민간 탁아에 대한 근거가 없다.

현재의 탁아시설과 보사부가 향후 추진하겠다는 탁아사업 계획으로는 전면적인 탁아복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 공립 탁아와 민간탁아가 공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시행령에서는 3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탁아’와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탁아’로만 구분함으로써 대부분 20~25명을 보육하고 있는 중소 규모의 민간 탁아에 대한 근거가 없다.

(원래 입법예고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10명 이하 보육하는 ‘가정탁아’로 높은 시설 기준, 인적기준을 강제하는 규제입법적 내용이었으나 본 연합회의 강력한 항의와 대체입법의 성과로서 20명 이하 보육시설까지 가정탁아로 인정하게 됨)

(6) 민간 탁아소에 대한 재정지원 미비

올해의 탁아예산이 19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탁아소의 조직을 너무 방만하게 갖지 않고 기존의 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시켜 기존의 시설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 시행령에서는 30명 이상의 시설탁아에만 지원규정이 있고 시설탁아의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빈민, 공단지역의 비영리 탁아소에는 지원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가정탁아시설에도 지원을 하겠다면서 17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하였으나 본회 소속 탁아소가 그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는 구체적 지침이 없다고 하고 있고 또한 가정탁아는 20명 이하 보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30명을 보육하고 있다가 법인화는 불가능하고 재정은 너무 열악하므로 지원을 받기 위해 10여명을 내보낸 경우도 있다.

(7) 직장탁아, 농촌탁아에 대한 방기

직장탁아는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확보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발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탁아는 별칙조항등 강제규정이 없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규정으로 떠넘기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여성노동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부터 직장탁아소 설립을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여성노동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기혼여성노동자는 소규모 하청업체에 취업률이 높은것을 감안할 때 다분히 전시행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촌에서도 농번기가 따로 없고 수로에 빠져 죽는등 방치아동의 문제가 심각하다. 1년중 2개월 운영에 불과한 농번기 탁아소는 월 10만원의 미미한 보조로 인해 농민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탁아소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대안은 언급조차 없다.

3. 관 주도 탁아소의 문제점(새마을 어린이집, 88 탁아소)

(1) 시간이 맞지 않는다.

많은 맞벌이 부모들의 실제노동시간은 10~12시간으로 이에 준한 탁아시간이 절대필요하다. 최근 관 주도 탁아소에서는 10~12시간의 탁아시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시간에 교사들의 뒷정리 및 사무처리 시간이 포함되어 많은 경우 평일은 8~9시간, 토요일은 오후 2시경에 끝나므로 많은 저소득층 부모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운영위탁조건의 문제점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78평이상의 대지를 가진 자라야 하므로 빈민지역의 조그만 교회, 성당조차도 땅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탁을 받고 있지 못하다.

(3) 예산의 불합리한 운용

위탁신청시 일단 78평이상의 땅을 내면 국가가 그곳에 시설을 하고 1년에 약 59,330,000 원을 지원하며(아동 50명기준—이금액이면 민간 탁아소 10곳이상의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1개시설의 개보수비로 980 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는 원장, 총무등 아동수에 비하여 관리 인원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예산이 운용되어야만 현재의 시급한 탁아욕구에 대해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지원의 지속성의 문제

과거 새마을 유아원의 경우 초기에는 100% 지원하다가 점점 80%, 60% 로 지원을 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육비가 올라가게 되어 결국 중산층이 이용하는 유치원화하고 말았다. 현재에 있어서도 보사부의 보육료 지침에 따르면 면제자가 15,000 원, 추천 감면자 37,000 원 일반 주민자녀 89,000 원으로 보육료가 차등 산정되어 있는바 앞으로도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되어지지 않을 경우 과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5) 탁아소 설치의 비합리성

탁아소가 없는 지역이 허다한데도 기존의 민간 비영리 탁아소에 바로 옆에 정부지원 탁아소를 설치하여 민간 탁아소의 존립에 위협을 주기도 하며 심지어 민간 탁아소에 다니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을 빼내가는 불합리함을 노출하고 있다. 탁아소설치에 있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일견 타당하나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저소득층 아동을 방기할 수 밖에 없는 오류를 낳고 있다. (예: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아닌 망원동의 혜영이 용철이 남매 절식사 사건)

4. 향후 과제

(1) 탁아입법의 추진과정에서 탁아교사, 자모, 일반대중에게 탁아의 현실과 탁아소의 필요성을 생존권적 차원에서 선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된 역량으로 과정자체가 탁아운동의 발전이 되게하고 국회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과물을 획득하게 한다.

(2) 입법후에도 법의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정당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계속 노력한다.

(3) 현실적인 '탁아지원선'의 정립이 매우 필요하다.

'빈곤선'책정은 전 복지정책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빈곤선'이랄 게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복지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뿐인데 그 선정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선정과정이 자의적이어서 그나마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재산과 소득을 함께 기준으로하여 현재의 물가기준에 맞는 '빈곤선' (탁아지원선 부터)이 이 법 통과후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만 법 운영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할 수 있고 현실적인 지원대상으로 확대되어질 것이다. 이 후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탁아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방법의 강구를 통해 사회복지제도로서의 탁아제도의 정착을 위해 건설적인 제안과 비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4) 민간 탁아소의 확산과 그에 따른 올바른 탁아프로그램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탁아활동을 할 수 있는 탁아교사의 양성이 입법 추진과 더불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 가사노동에 관하여 ■■

김영희(여성사연구회 회원)

탁아소 활동(특히 자모회 활동과 전망)과 여성문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본질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지역여성조직의 기초가 되리라 본다.

이에 여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앞으로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여성문제들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조명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이번호의 가사노동의 문제는 모든 여성이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이다. 특히 취업여성의 중

가, 그중에서도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가사 노동의 문제는 이제 어느 개인이나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님을 생활속에서 알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은 물론 전업 주부까지 포함할수 있는 가사노동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키고 그것을 개인이나 한 가정이 아닌 사회속에서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순 서 ◎

1. 가사 노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나
2. 가사 노동을 둘러싼 주장들
3. 가사노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
4. 가사노동의 사회화

가사노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나?

가사노동이라면 뻔히 아는 건데 더 알고말고 할 게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일수록 겉모습만 보고 마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때는 기껏 바깥다 해도 피상적인 변화에 그치기 쉽습니다. 몸의 병은 놔두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

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가사노동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아무래도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더듬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가사노동이 언제나 있어온 것이 아니라 특정시기에 발생한 역사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으려니와, 이러한 이해를 가질 때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에도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금처럼 살아왔고 그것이 자

연스런 것이라면, 변화를 얘기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어요?

원시공동체시대처럼 가정과 사회가 애당초 따로 있지도 않았고, 남녀가 함께 먹을 것을 구하고 집단의 결정에 참여했던 때에는 육아와 취사 같은 일도 가족이 아닌 집단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이때는 물론 지금의 가사노동이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생산이 발전되어감에 따라 일을 사람마다 갈라맡고 일의 결과로 생산된 물건들을 교환하는 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환 속에 포함되는 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갈라지는 현상, 이른바 가정과 사회의 분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런저런 조건이 겹쳐 —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습니다만 — 집안일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가족은 여전히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여성이 하는 일의 경우에도 ‘생산작업’과 ‘집안일’이 지금처럼 분명하게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성농민의 경우에는 이런 측면이 아직 남아 있는 셈이지만요. 그러다가 이러한 분업과 교환이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정과 사회의 분화도 극대화되어 가정은 주로 소비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그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현재의 가사노동이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밖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사서 직접 먹고 입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을 주로 하는 가족단위의 노동형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현재의 가사노동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러는 가운데 가사노동이 무엇인가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입니다. 즉, 어느 시대에도 가족단위로 하는 일이나 집안에서 하는 일 모두를 가사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이란 자본주의의 정착과 함께 굳어진 현대 특유의 가내노동방식

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을 유지하고 밖에 나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되, 그 본질은 사회적 생산으로 부터 분리되어 수행되는 사적인 노동이라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아도 의미가 선뜻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가사노동’하면 특정한 종류의 일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의 내용, 과제의 종류가 가사노동의 본질이라고 잘못 보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아이를 돌보고 밥짓고 빨래하고 하는 등등의 일이 가사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생각해봅시다. 세탁소에서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음식점이나 식품공장에서 하는 일은요? 탁아소, 유치원 등에서 하는 일은요? 일의 종류는 같습지만 이것을 가사노동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결국 같은 일이라도 어디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사노동이 되기도 하고 흔히 바깥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노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노동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며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도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일의 결과가 사회 속에서 교환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사노동은 개별적으로 행해지며 거기서 생겨난 소산물도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가족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사노동의 작업들만 떼어놓고 보지 말고 그 작업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사노동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일 자체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가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다수 주부가 가사노동에서 보람과 불만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가사노동이 양면적 성격 — 일 자체라는 측면과 그 일을 둘러싼 관계

— 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음날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쉬고 자는 일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노동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현재 이 노동은 대부분 가사노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일 자체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사노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결국 그것이 개별 가족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가사노동을 둘러싼 주장들

가사노동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이처럼 길게 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처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작업관계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을 바꾸는 일이 중요해지겠지요. 그런데 요즈음 이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가사노동도 밖에서 하는 어떤 일 못지않게 값진 일인데 가사노동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른바 주부문제도 주부로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 한 가지입니다. 가사노동을 가능한 한 줄이고 사회적인 노동으로 바꿔나가자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오히려 가사노동을 하찮게 취급하는 통념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비판하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기도 하구요. 그러나 이런 입장은 가사노동을 사회화하자는 이야기를 오해한 것일 뿐 아니라, 가사노동을 작업 차원에서만, 그 기능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가사노동에 포함된 일들 자체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여성이 가사에 종사하는 것을 집에서 논다고 표현한다든가, 주부는 앉아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 판국이니, 이런 주장도 나올만 합니다. 막말로

주부가 놀고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부의 장시간 노동의 덕분이며, 따라서 남편이 버는 돈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이 소중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다가는 그것이 노동으로서 안고 있는 문제를 흐려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노동이든 노동은 인간의 생존을 가능케 하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존엄한 것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노동을 하는가에 따라 오히려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고통스러운 질곡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열악한 환경과 엄격한 통제 속에서 허구한 날 한가지 단순작업만을 반복해야 하는 사람에게 노동이란 존귀한 것이니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사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자체로 볼 때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결코 하찮게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개별가족 단위로 집 안에서 고립된 채 행해지며 주로 주부가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가사가 이루어지는 작업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철폐하자는 것은 이 관계를 사회적인 관계로 바꾸어내자는 것이지 먹을것 입을 것을 준비하는 일 자체가 하찮다거나 그 일 자체를 없애자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사노동도 하나의 노동이고 노동인 만큼 귀중하니 자신감 있게 일하자고 한다면, 여성을 주부의 위치로 더욱 묶어놓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지불요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가사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면에서는 옳지만, 여성이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 자유롭고 사회적인 주체로

서는 길을 모색하는 데는 못 미치는 이야기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장이 가사노동은 그대로 둔 채 가사노동에 대한 생각만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에 가깝다면, 임금지불 요구는 물질적인 보상만 얻어내면 된다는 얘기로 흐를 위험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입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가사노동을 화폐적인 가치로 환산해내는 일이 온통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필요성은 사고를 당한 주부의 보상금액 책정문제 등 현실에서 실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의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를 바로잡은 것은 시급한 과제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릇된 현실에서 받는 어려움을 일부 덜어내는 정도이지, 그 현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못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사노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럼 이제 가사노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 되풀이가 되겠습니다만, 문제의 근본원인은 그것이 개별가족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 그리고 이런 관계를 낳은 전체 사회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가사노동의 개인적 성격에서 생기는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선 사회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모두가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임금이란 노동자가 일터에 매일 나가서 일할 수 있고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가치의 물건과 일이 필요한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 산물에만 인정되므로, 사회적인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부분은 가치로 환산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실제 필요한 물건과 일의 양에서 가사노동 부분이 빠진 채

로 임금이 책정되어 결국 임금의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는 한층 심각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은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일할 뿐이라는 통념 때문에 남성에 비해 평균 반 남짓하는 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통계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오히려 최저생계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일자리도 많지 않고 또 승진할 기회도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여성은 애당초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가졌다가도 그만두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주부의 존재가 차별받는 여성노동자를 낳고 차별받는 여성노동자의 존재가 주부를 낳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돈은 벌어야 하고 집을 비울 수는 없는 빈민여성들은 하는 수 없이 가내부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수라고 해야 생산적여성의 1/4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을 가진 경우에는 또 가사와 바깥일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 수도 없는 기층여성들이 겪는 곤란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고, 이 와중에서 희생당하는 것은 비단 여성만이 아닙니다.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문제 역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매임으로써 사회·경제·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밀려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니 여성은 자연 가족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식구들한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즈음 중년여성의 위기니 하는 것도 식구들 뒷바라지에만 전념하다보니 어느새 자기 나름의 생활을 잃게 되고 남편과 자식의 세계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갖게 되는 삶의 위기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속편한 고민이라고만 제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때 말하는 생활의 여유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상층 여성의 경우에도 기껏해야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여유이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삶을 풍부하게 꾸려나갈 여유는 아닙니다. 편하고 안락하다고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뭔가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려는 것이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가사노동이 공연히 복잡해지는 경향도 눈에 띄는데, 얼마간은 이러한 욕구에서 비롯된 현상인 듯 싶습니다.

가사노동을 비롯하여 소비가 가족단위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족이기주의가 조장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식구한테는 지극히 헌신적이지만 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거나 매몰차기까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하고 가족 외의 일에는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비판하는 일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태도를 부추기는 원인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아내를 남편에게 부양받는 존재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가 주종관계처럼 되기 쉽다든가, 함께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저마다 따로따로 함으로써 막대한 물자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든가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더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실극복의 방향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점인데, 이 자리에서는 추구해나가야 할 변화의 큰 줄거리만을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생활에서는 저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되, 용기와 꿈을 갖고

스스로를 다져나가는 자세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임금지불 요구나 가사노동의 가치존중 등의 주장이 자칫하면 여성의 처지를 개선하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 쉽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에도 옳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가사노동에 포함되는 일들이 하찮은 것이거나 혹은 당연히 여성이 맡아야 할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노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면에서 말입니다. 가사노동이 존속하는 한, '그것을 어느 한 개인에게 맡겨버리지 말고 사회 전체, 작게는 가족 전체의 문제로 떠안아야 마땅하며 식구끼리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선 아직은 도와준다는 정도이긴 하지만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일반적이기보다는 예외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요. 아무튼 가사노동의 적절한 분담도 가사노동의 문제를 푸는 한 가지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사노동을 개별적인 관계로부터 이끌어내는 것, 즉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여성이 평등한 조건에서 사회적 생산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화도 현실적인 필요로 실감있게 제기되고 추진될 수 있을 테니까요. 거꾸로 사회화 등을 통해서 가사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여성의 사회적 노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요. 이렇게 이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노동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법·경제·정치 등 여러 차원에서의 노력이 가사노동의 해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부의 입장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남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런 움직임들에도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그런데 사회화의 방식에도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화, 즉 상품화입니다. 다시말해 가사노동에 포함된 일들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이 요구하던 많은 것들 사이에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과점·라면공장·국수공장·음식점·세탁소 등등이 다 이런 예입니다. 이런식으로 전부 상품화시켜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람들의 필요가 뭐고 어떻게 하면 좋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보다는, 뭐가 잘 팔릴 것이고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에 골몰하게 됩니다. 인간의 필요는 이 이윤추구의 틀바구니에서 쉽게 희생됩니다. 불량식품이 끊임없이 사회문제가 되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두드러진 한 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상품화는 우리의 최선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운동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제어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본이나 기업의 속성을 바꿀 수 없는 한 이런 운동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한결 바람직한 방향은 비영리적인 방식으로 사회화해내는 것이며 우리가 가사노동을 사회화하자 할 때 뜻하는 바도 주로 이것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전체 사회 혹은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고 관리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시도들이 있더라도 다른 목적에 이용되거나 결국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탁아사업 같

은 것도 그 한 예이겠지요. 국가의 사업이 진심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으려면 진정 민주적인 국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명실상부한 주인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민주국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핏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민주화운동들 또한 가사노동문제의 해결과 직접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가에 기대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운만큼 민간차원에서, 즉 직장이나 지역주민, 사회화를 이뤄나가면서 국가에 재정적인 보조를 요구하고 나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국가사업을 꾸려나가기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탁아소·어린이방·공부방·공동식당·공동세탁장 등 가능한 여러가지 사회화 방식을 찾아보고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각자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실제로 상품화를 통해서도 이런 일은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집안에서 만들어 쓰던 물건들, 집안에서 하던 일들 중 많은 것들을 지금은 돈을 내고 사거나 서비스받거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위를 살펴보면 이런 집단적인 해결방식이 지역이나 직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탁아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이는 육아가 직장을 가진 여성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일 뿐이며, 아이 돌보는 일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면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좀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사노동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비로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은 혼자서 궁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가사문제를 한 여성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공동의 문제로 제기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문제의 모습도 더 뚜렷해질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

구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금이 아닌 상태, 좀더 나은 상태에 대한 꿈을 갖는 일인 듯 싶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며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있고 여유 있는 자세로 미래에 대한 큰 꿈을 일궈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여성과 사회”에 실린 글입니다.



◎ “이모랑, 삼촌이에요” (성준영, 5세 남자, 한우리탁아소) ◎

성남지역의 “들풀회”를 찾아서

성남의 상대원 시장통을 쭉 따라 들어가 분도 탁아소의 풍물실에 들어가니 어머니들이 장구를 하나씩 끼고 앉아 계셨다. 아마도 전번 모임에서 배운 장단을 연습하시는 모양이었다.

이 모임을 성남 지역에 있는 분도 탁아소, 푸른솔 애기방, 새날 아기마을에 아이를 맡기는 어머니들이 “들풀회”라는 이름으로 주1회씩 금요일날 만나서 풍물도 배우고 이야기도 나누는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을 “들풀회”라 지은 것은 들에 핀 잡초는 알아주는 이가 없고 보아주는 이가 없어도 그리고 났을 수록 잘 자라기 때문이며 일하는 어머니들도 들풀처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건강하고 힘차게 함께 살아가자는 뜻에서 만장일치로 정해졌다.

3월 22일 부터 시작하여 여덟번째 모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7회 정도를 더하여 총 15회 모임을 한다고 한다.

여덟번째 모임인 오늘은 어머니들이 각자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다함께 나눠 먹으면서 중간평가를 하기로 한 날이라 한다. 어머니들이 가지고 온 딸기, 순대, 만두, 토마토, 도시락등을 펼쳐 놓고 있는데 늦게 아이를 업고 들어오신 어머니께서 “남편이 아파서 오늘은 풍물을 못 배우겠다”고 하시며 그대신 월급날이나 막걸리를 사오겠노라고 하시면서 나가서 막걸리와 오징어를 사오셨다. 그 어머니는 이야기 하는 재미에 남편이 아픈것도 잊고 거의 끝

날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번 풍물 모임을 이끌고 있는 선생님은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모임을 한것은 처음인데 어머니들이 너무나 열심히 한다”면서 흐뭇한 표정을 보이셨다.

이 모임에는 11명의 어머니들이 참석하시는데 매 모임마다 한 두분을 빼고는 거의 참석하시며 매 모임마다 그날 배울것에 대한 교육안이 나간다고 한다.

진행은 배운것을 한번 복습하고 이야기 마당, 새가락 배우기, 새노래 배우기로 이어진다. 이야기 마당은 지금까지 풍물에 관한 ‘풍물과 두레’, ‘풍물과 단결’, ‘풍물과 노동’, ‘풍물에 나타난 품성’ 등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타 교육적 내용과 비디오 상영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새 가락을 배울때는 능숙하게 해내는 어머니부터 얼굴을 붉히며 어려워 하는 어머니까지 그 눈빛은 배우려는 열기로 가득차 있었다. 특히 이번에 열린 “새날을 열어갈 우리 아이들” 노래 공연때 보여준 어머니들의 실력도 풍물 모임에서 익힌 노래솜씨가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먹거리를 가운데 펼쳐 놓고 둥그렇게 앉아서 아이가 아파서 몇일 출근을 못했다는 이야기, 남편이 아프다는 이야기등 너무나 편안하게 한 가족처럼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 속에서 이 모임이 어머니들 마음속에 자리잡혀 가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일 끝나고 모임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하는 물음에

“일터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장구를 치면 풀리는것 같고 다음날 출근해서 참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어깨를 으쓱해 보이신다.

이런 저런 이야기속에 풍물 모임에 나오는 것을 남편이 반대해서 못나오고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왔을때

“남편이 무슨 상관이야,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지.”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내가 풍물을 배우고 들어가면 기분이 좋은것 같으니까 지금은 저녁에 들어와 아이도 봐주고 잤다 오라고 하더라.”

“내가 저녁때 나와서 풍물도 배우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저녁시간을 보내니까 남편이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도 이해가 되더라, 남편은 설득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들이 앞으로 일

터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풀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 끝나고 나서 저녁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어머니들에게 쉬운일이 아님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모임을 평가하면서 “풍물 모임이 끝나도 계속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저녁 시간이 짧아서 참 아쉽다.”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다.”

“풍물외에 다른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등 이 모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셨다.

각 개별 탁아소의 모임도 쉬운일이 아닌데 하물며 각각 다른 탁아소들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모임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더욱 힘든일이 겠지만 어머니들의 이야기 처럼 풍물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일하는 여성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모임으로 들풀회가 지속되어 지길 바란다.◎



■ 장구배우기에 여념이 없는 들풀회 어머니들 ■

□■□ 전세값 폭등과 주택문제 □■□

◎이태윤 (도시빈민연구소)◎

1. 내집마련의 '꿈'

전세값이 다락같이 뛰어 오른다. 싼 방을 구하러 사방팔방으로 다녀보지만 아예 '물건'이 나오지조차 않는다. 서럽다 못해 분노가 끓어 오르고 그 와중에 전세값 폭등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이 15명에 이른다.

이럴수록 '내집 마련의 꿈'은 강해진다. 문제의 사회적 해결보다는 개별적 해결에 먼저 매달리는게 주민의 일반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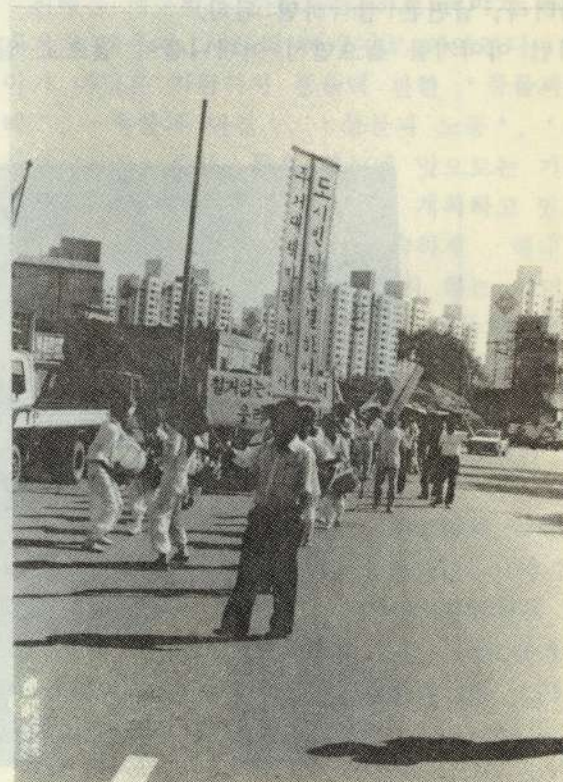
(물론 빈민, 공단 지역의 노동자, 빈민이 애초에 가난한 살림에 맞는 값싼 방을 찾아 들어온 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조차 대부분 없다) 따라서 개별적 해결이 무망함을 스스로 수긍할 때만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나서게 될 것이다.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 또는 전세자금을 빌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주택금융 제도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 가운데 노동자, 도시빈민(월 수입 40만원선으로 가정)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청약저축'과 '내집마련 주택부금', '무지개통장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월 최저 2~3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가입한다고 해도 집이 자기 차례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있다.

여기서 '집'이란 우선 기존주택은 제외된다.

기존주택으로서 아무리 싼 산동네 집이라 해도 이미 4천 선을 넘고 있어서, 은행 융자 안고도 최소한 2천은 현찰로 쥐고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주택청약저축' 외에는 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결론이다)

결국 주공이나 시에서 짓는 신규 공영아파트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물량이 작



아서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꼭 필요한 '청약저축'을 다달이 5만원씩 12년 6개월을 붓고도 아직 분양 못받은 사람이 2천 8백명이다. 게다가 이미 청약저축 가입자가 서울에만 30만명 정도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올해 겨우 15,880 가구 뿐인데서도 볼 수 있듯이 어차피 꿈은 '꿈'일 수 밖에 없음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이런 저축이니 부금을 통해 국가는 내집 마련의 꿈을 여전히 실현 가능하듯이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체제에 대한 불신과 일탈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전세금 융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몇 백이라도 융자를 받기 위해선 재산세 2만원 이상 내는 보증인 2인이나, 담보가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롭기 짝이 없어서 실제 이 혜택을 본 사람들은 월 수입이 74만원 선인 중산층들이다.

위에서 잠깐 비쳤듯이 노동자, 도시빈민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으려면 결국 주공이나 시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싸게 짓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에 앞서 전세값이 왜 이렇게 뛰고, 주거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 전세값 폭등의 원인 또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

전세값=임대료의 개념은 '주택에 대한 사용료인 동시에 현 시가에 대한 이자'로 정의된다. 집이란 상품은 처음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 외에는 더 들어갈 게 없고 오히려 갈수록 남아지니까 그 사용료는 고정적(약간 하락)이다. 그러나 현 시가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연 10% 이상의 이자를 따먹을 수 있을 것

이다. 이 이자 대신 전세금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전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땅값의 폭등이다. 결국 전세값의 폭등은 땅값의 폭등에 그 근본원인이 있게 된다.

우선 지가상승률을 보면 서울의 경우 88년 28%, 89년 33.5%였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곧 주택문제에 내재한 모순구조를 해명하는 길이 된다. 먼저 토지가 독과점되어 있다.

(표 1)

인 구	계 총	점 유 율
1,080 만명	상위 5 %	65.2 %
	상위 25 %	90.8 %
	75 %	9.2 %
국민의 3 / 4		0

<전국토의 66%인 민유지에 대한 소유 실태>
즉, 국민의 3/4이 한뼉의 땅도 갖지 못하고 있는 반면 1.2%의 극소수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땅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구학적으로 봐서는 그 의미가 다 드러나지 않는다. 1.2%는 막연히 부자들이 아니라 바로 재벌들이다. 그들은 법인의 형태로 그리고 위장된 개인 명의로 토지를 독차지하고 있다. 삼성은 기업투자액보다 4배, 롯데가 5배, 기아 4배, 금호 3배, 두산이 4배씩 부동산 투자액이 많았다는 사실은 재벌들이야말로 땅 투기꾼의 장본인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재벌들이 땅투기에 혈안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투기 이윤이 산업 투자보다도 더 큰 이윤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만약 단순한 개인으로서 투기꾼이 땅을 사들여 이득을 남겼다면 그것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거나, 토지거래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거나, 세금을 무겁게 때려야 한다는 등의 처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한국 경제의 구동축을 이루는 재벌기업들이 땅투기에 몰두

(표 2)

부 동 산		86 년 말	87 년 말	88 년 말	89 년 상반기
	(평 수)	1 억 1 천 9 백만평	1 억 2 천 3 백만평	1 억 3 천만평	1 억 4 천 2 백만평
	(가 격)	6 조 4 천억원	7 조 8 천억원	10 조원	10 조 9 천억원

< 30 대 재벌의 부동산 투기 현황 >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한국자본주의의 운동법칙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 경로로서 토지 투기는 이미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 하는 듯하다. 다만 재벌에 의한 토지 투기가 (국가) 독점자본의 일반적 속성에서 기인하는가, 또는 한국 국가권력의 식민지성과 관련하여 매판적, 기생적 자본주의로서의 성격에서 연유하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토지 투기가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있어서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다. 문제는 이것이 실천과 관련하여 토지, 주택문제의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를 달리고 있다.

3. 대안으로서의 생활임금쟁취투쟁과 공공임대주택정책

상승하는 주거비는 결과적으로 임금인상투쟁을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해들어 노총과 전노협은 단체협약안에서 주택수당을 신설하거나, 내집 마련 자금 또는 전세금융자를 위한 기금 설치를 요구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여기엔 주거비는 곧 노동력생

산비용 가운데 주요한 요소이고 임금 수준은 마땅히 이 재생산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생산관계에서의 변혁없이 노동계급의 주택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앵겔스적 시각에 선다.

따라서 노-자 모순을 지양하는 유일한 전략적 침로가 노동운동을 통한 자본의 착취율 감소에 있는만큼 임투를 중시하고 있다.

한편, '원론적 현장주의'라는 전자의 입장과는 달리 '재분배론적' 시각에서는 사용권과 소유권의 분리를 통한 저렴한 주거비의 실현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구 자본주의의 나라에선 보편적인 것으로 그 경우 총자본의 입장에서 서는 국가가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 즉 전쟁이나 공황이나 노동계급의 체제내화를 의도한 배경에서 도입된 주택정책이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천적 함의가 다르리라고 본다.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사적 소유가 금지된 소형 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은 최근에 들어서 비로소 도입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기왕의 주택공급정책이 철저하게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따라서 근로대중을 배제하는 계급적 편향을 보여왔던 바, 일례로 70년에서 85년 사이 20평 미만 소형 주택이 전체 주택의 80% 이상

에서 40% 선으로 떨어졌다. 28만 채에서 15만채로 줄어 든 반면, 그 이상 중·대형 주택은 대폭 늘어 났다는 것이다. 재개발이 본격화된 85년 이후 통계를 잡았으며 이보다 훨씬 악화된 주택 불평등성이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로 하여금 기왕의 주택공급논리를 탈피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 국가의 물적 토대, 공공재정능력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전시킬 때 그 전술적 위상이 규정될 것이다.

4. 결론에 대신하여

중요한 것은 어떤 대안이 됐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일 때 유의미하다고 본다면 공단, 빈민지역에서의 활동(선전, 교육, 조직)영역에서는 당면한 전세값 폭등에 대응하는 세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대중성이 주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은 공급자가 우세를 점하는 1대1 계약관계이다. 여기서 세입자의 대항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세입자들을 조직하여 임대차계약을 집단적으로 맺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아직 논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적절한 임대료의 상승률을 결정하기 위해(그런 의미에서 임대료 파업은 아니다) 세입자 조직의 대표와 가옥주의 대표가 협상하도록 하는 운동을 지역단위로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늠되고 있다.◎



주택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 되면서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문답풀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으로써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발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되게 됐다.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만하면 후 순위저당권자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기준과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 여부가 세입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이번 법령정비로 세입자들은 전세입주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법원에서 확정일자 받기만하면 전세든 집이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 처분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어서 억울하게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없게 됐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용어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범위내에서 인정받는가?

➡ 최우선 변제권이란 후순위 담보권자는 물론 자신보다 먼저 담보권을 설정한 사람보다도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시행령은 서울 및 직할시에서는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천5백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이 보증금중에서 서울시 및 직할시에서는 7백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5백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들어 2천만원의 전세를 사는 세입자는 7백만원을 먼저 돌려받고 남은 1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순위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

➡ 개정안에 새로 마련된 것으로 세입자가 입주한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5천만원의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입주한 뒤 제3자가 담보권까지 설정하더라도 제3자보다 우선해 전세금을 되돌려 받는 권리다.

그러나 이같이 후순위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 확정일자이란 그날짜 현재에 문서가 만들

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부의 번호나 일자인을 찍는 것을 말한다.

이 업무는 법원민사과나 시내공증사무소에서 수수료 3백원을 받고 취급하는데 소급해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지 않으며 확정일자부를 작성 비치해 두도록 되어 있다.

채권변제 순위는 확정일자가 기준이되며 날짜가 빠를수록 변제우선 순위도 앞당겨지므로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세입자 혼자서도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공증했을때는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전세기간은 항상 2년단위로하며 2년안에 전세대금은 전혀 인상할 수 없는가?

➡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한것은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2년미만일 경우 2년으로본다는 것일뿐 강제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과 합의하면 2년미만 또는 그 이

상으로 얼마든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을 물가등을 고려해 1년을 기준으로 전세금을 올릴 수도 있다.

개정시행령은 1년내에 보증금액의 5% 이상을 초과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는만큼 집주인이 많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도 세입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지난해에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시행령확정 이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가?

➡ 그렇다.

==개정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담보권자는 어떻게 되는가?

➡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서울시 및 직할시에는 5백만원, 기타지역 4백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준 나머지 돈에서 변제받게 된다.◎



◎ “우리 식구들” (권지은, 5세여아, 한우리탁아소)◎

● 왜, 지금 곧 생활문화 운동을 시작해야 할까? ●

◎ 이기연 (화가, 민족생활문화연구소 소장) ◎

얼마전 돌잡이가 콜라를 즐겨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기가 하도 먹질 않아 그 엄마가 궁리해낸 게 콜라를 먹이는 방법이 었다는데 그래서 그 아긴 콜라를 주지 않으면 단식투쟁(?)을 하면서 몹시 울어대는 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뿐인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각종 전쟁장난감과 로봇, 전자오락과 텔레비전 속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는가.

우리는 흔히 외세 상업주의 문화에 대해 조건반사적인 경각심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식을 깊이 고민하지는 않는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나 혼자 힘으로 뭘 얼마나 하라 싶어서이다. 허나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른다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연습(?)'하는 패배주의는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2차대전 후 원자폭탄으로 잿더미가 된 일본에 입성한 맥아더장군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땅을 코카콜라와 팝송으로 다 스리겠다."

그 말은 <보다 확대증폭되어> 이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전 상품개방화율은 93.6%(88년 통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광고물에는 외국연예인들

출연이 늘어나고,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38%에 지나지 않으며 농산물수입자유화율은 7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몸의 70%는 외제인 셈이다. 과연 우리 민족의 자주성은 몇점짜리 일까?

우리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서구식 발전논리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소홀한 때 우리 아이들은, 외세의 이익이 가장 손쉽게 관철되는 이 불행한 땅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카우보이의 의붓자식처럼 자라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는 불행한 청년이 될지도 모르니까, 87년 6.10 시민항쟁이나,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우리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고 겪고 느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뼈저린 경험도 했다. 그러한 것이 문화운동에도 반영이 되어 '대중이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서의 문화운동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생활문화운동의 뿌리도 바로 그런것이라 하겠다.

또 민중들의 힘이 커지면서 국내의 독점자본과의 대립이 드세어지자 제국주의와 매판세력은 자신들의 폭력과 탄압의 본질을 문화적으로 포장해(?) 우리생활 곳곳에 교묘히 위장침투시키는 문화공작을 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각심, 싸움의 자세는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모습으로까지 확장되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의 주체적이고 집단적인 참여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문화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이 인식해야 할 때이다.

• 우리의 문화현실

이 땅의 문화현실은 가히 국제적이다. 뉴욕이나 일본의 어느 도시를 방불케할만한 화려한 도심지풍경, 그 그늘에서 암세포처럼 급격히 번지는 공해, 늘어나는 각종 외국 음식점,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기술제휴한) 각종 즉석식품들, 일본잡지를 그대로 흥내낸 청소년들의 차림새, 직접 배급되는 외국의 저질 성(섹스)영화, 거기에 에이즈까지.

이런 현상들은 얼핏보면 단편적인 것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철저한 손익계산이 깔린 구조적음모의 산물이다.

지난 '62년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착수된 이후 외국으로부터(주로 미국, 일본이 80%정도 점유) 들어오기 시작한 '기술도입'건수가 86년 2월까지 무려 3천 51건인데, '62년부터 '78년까지(박정희군부독재기간) 16년동안 들어온 것이 625건이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86년 2월에 이르는 7년동안 들어온 것이 무려 2천 4백 26건이나 된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전두환정권은 박정희정권때보다 10배이상이나 예측을 심화시킨 것이다. 그 품목에 있어서도 주로 사치품이 증가했으며, 한창 탄압의 회오리가 몰아치던 '85, '86년에는 무려 8백배나 수입이 늘어난 사치품이 있을 정도였다.

이것에서 우리는 전두환 정권의 '탄압의 영구화'를 위해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문화통치를 위한 물량공세에 얼마나 치중해 왔는가를 읽어낼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저항의식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소비·향락·퇴폐·사대문화의 확대재생산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가를 읽어낼 수 있다.

'역사이래 최대의 도적질'이라는 5공비리의 저변에 이렇게 우리 민족의 앞날까지도 담보잡힌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함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제 6 공화국은 이러한 유산을 이어받으며 들어섰고 그 유산을 보다 확대재생산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음모적인 문화공작을 보다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있다.

외세와 군사독재의 지배문화는

1) 커피, 햄버거, 콜라, 청바지, 팝송 등의 사대주의 문화(흔히 과학문명이라 위장된다)

2) 세계 최고의 산재율, 비민주적 교육제도 등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을 경시하는 군대식 관료주의 문화

3) 국풍 81, 민속경연대회, 전설의 고향, 소여물통, 탁자 등에서 볼 수있는 것처럼 형식만 계승하면 전통계승이 된다고 왜곡시키는 박제화된 민족문화.

4) 엄청난 국가예산을 소모하며 일부 극소수층에게만 향유되는 오페라, 현대무용, 현대미술등 소위 순수고급문화로 위장되어 우리 주변에서 활개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지배문화의 본질이 '비인간적', '비민주적', '반자주적', '반통일적', '반생명적'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민중이 민족의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민족의 해방통일,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룩해내기 위해서 민중주체의 생활문화를 형성해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생활속에서 일상적으로 싸워나가는데 무기가 될 문화운동이 필요하다.

문화란 무엇인가?

흔히 '문화' 하면 노래, 춤, 소설, 영화 등 예술에 한정된 대답이 많이 나온다. 문화는 사상, 예술만을 일컫는 말일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문화는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노동의 총체적산물을 일컫는 개념으로 생활양식까지를 포함하며 크게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대별된다. 이중 물질문화가 정신문화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문화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정신문화가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역으로 물질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헌데 여기서 정신문화의 상대적인 독자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문화운동은 관념적인 정치 선전·선동 부분으로 국한되며, 원칙을 강조하는 공연·예술중심으로, 기능을 가진 전문 지식인 집단에 의해 주도되게 된다. 이것은 곧 문화는 배운자, 가진자, 여유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허위의식을 형성하며 또 다시 대중을 소외시키는 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화주의적 오류일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제국주의문화의 잔재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청바지, 코카콜라, 천연색텔레비전등 수 많은 생활용품들은 실용성, 또는 순수한 과학문명의 편리함 등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중들을 이기적이고 의존적으로 변질시켜 지배체제에 부속되게 만드는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당파성을 띠지않은 순수한 물질문화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대중과 함께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선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정신무장과 함께 총체적인 이념공세, 개량화술책을 생활 속에서 부터 차단해내는 '일상적인 문화투쟁' 즉, 대중들이 스스로 집단주의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해방공간의 건설이 필수 불가결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 모순이 몰려있는 땅에선 혹독한 지배구조로 인해, 사회를 발전시켜가는데 있어 끈질기고 장기적인 지구전적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책방, 사랑방, 탁아소, 놀이방, 공부방 등의 문화공간 속에서 생활문화운동이 수행되며 운동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모순이 극심한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놓여진 생활현장은 바로 모순의 집적지이다. 따라서, 일터, 배움터, 휴식처 등 우리가 놓이는 모든 장소는 바로 싸움터가 될 수 밖에 없고 민중주체의 생활문화는 바로 그 곳에서 창조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 놀이, 투쟁의 과정에서 식·의·주, 관습, 생활 속에서 외세와 군사독재의 지배문화와 민중문화가 맞부딪는 곳을 찾아 일상투쟁을 해가며 적당하게 타협하려하거나 지쳐있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과 싸워 이기는것, 그러한 것이 축적될 때만이 우리의 운동은 질적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문화운동은 기능을 위주로 하는 예술운동이나 관념적 이데올로기 투쟁에만 치중하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민족자주 생활양식창조운동으로, 자주·민주·통일운동의 특성인 집단성, 자주·민주성, 창조투쟁성을 일상적으로 확대재생산하여 대중들이 스스로 우리 운동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하면서 민족해방투쟁에 헌신적으로 뛰어 들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앞으로 3회정도 더 생활 문화에 대한 글이 시리즈로 나갈 것이다. 그 내용은 먹거리, 입거리, 살림터에 대한 올바른 생활 문화를 꾸려나가기 위한 것이다.

▲ 지역 위원회 소식 ▲

■성남지역위원회■

1990년 들어 지역 모임을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 성택협에서는 2회의 전체 교사모임 외에 교육분과와 조직분과로 나누었고 각 분과에 개별 탁아소에서 1인 이상이 격주로 모여 분과의 내용을 교사회의에서 공유하도록 하였다.

(1) 교육분과에서는 아동 교육 및 교사교육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논의하고 올해에는 공동 교육 계획안 작성외에도 노래·율동 모음집을 엮어낼 계획이다.

(2)조직분과에서는 부모 조직 및 자원활동가 조직, 지역내 연대등을 위한 홍보 선전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학습한다.

(3)성택협내의 공동사업으로는 1)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접종, 구강검진, 구충제 복용, 봄나들이 등을 지역내 관련 단체의 협조와 후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2)성남지역 여성대회를 3.24일 주취축으로 써 공동 개최하였다. 지역내 첫 여성대회로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내 연대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

3)주택문제를 지역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모임이 진행중인데 성택협에서도 긴급하고 절박한 사안이므로 지역 연대로 함께 풀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구로지역위원회■

1990년도 탁아법 쟁취를 위해 개별 탁아소 지역활동, 연합회 활동의 통일성을 꾀하자는 기치 아래 1월 30일, 31일 양일간 수원 용문사

에서 구로지역교사수련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9개 탁아소 18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2월 18일 각 탁아소의 소식지 위원중 부모 위원을 중심으로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편집 및 글쓰는법을 교육하였으며 3월 1일에는 각 탁아소 자모회 임원을 중심으로 회의 진행법과 자모회 운영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4월 22일에는 송실대 소운동장에서 부모, 자원활동가, 어린이, 교사 등 220여명이 모여 연합체육대회를 가졌으며 종합우승은 구로 놀이방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트로피 쟁탈전이 활발할 조짐이 보인다. 이후 행사 예정은 6월중 공동부모교육(탁아법)을 하고 8월 공동어린이 놀이마당을 열 예정이다.

■봉천지역위원회■

아동들의 바른 교육을 위하여 일나가는 엄마, 아빠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기초를 튼튼히 해주고자 공동교육안 작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교육분과 모임과 각종행사, 부모 교육등을 주관하는 조직분과 모임을 하고 있다.

3월중에는 같은 처지의 부모를 위로하고자 혜영, 용철이의 어린 녀를 기리는 제에 참여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부모들의 문제임을 인식하였으며 4월에는 인형극 관람을 함께 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새날을 열어갈 우리 아이들" 노래 공연에 나가기 위해 각 탁아소 어머님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한 마음, 한 소리로 내기 위해 어깨걸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동부지역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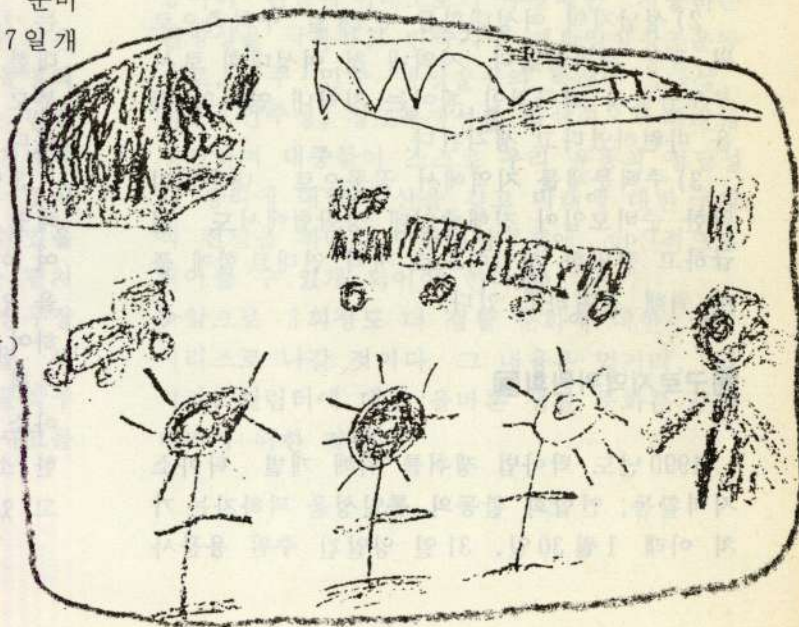
89년 교사모임의 평가에서 어느정도의 교사 간 인간관계는 형성이 되었으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단원탁아소별 문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사모임이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서 유지되어 왔다.

계속적인 만남속에서 지역모임의 필요성과 자리매김을 위해 고민해 오면서 자체정비를 해왔다. 우선 탁아활동가의 자세 및 품성, 탁아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부모문제, 운영문제, 아동교육, 전체적인 사업원칙)에 대하여 논의의 틀을 모았다. 더불어 지역공동사업일정을 개략적으로 설정하고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지역공동프로그램으로는 2회의(5월, 12월) 공동부모회 및 가족 물놀이를 추진중이고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올바른 아동교육관을 정립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동교육에 관한 교육과 정세분석 및 시기에 적절한 상황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개나리 동산에서 '마실터'의 조직적,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3달여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주부 한문교실을 4월 7일 개강하여 주 2회씩 운영하고 있다.

◎ “종묘에 소풍간 날” ◎

(김주완, 6세남아, 개구장이 어린이방)



북부지역위원회

90년 2월부터는 부모교육분과와 아동교육분과의 2개 분과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부모교육분과에서는 5월 중, 임원의 역할 및 회의진행법, 탁아소의 필요성, 지탁연 소개 등의 내용을 가지고 부모회 임원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아동교육분과는 교육철학 및 아동교육에 관한 학습을 8월까지 계속하고 9월부터는 공동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개별 탁아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월에는 공동부모회를 통해 '탁아입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1월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부지역 탁아소 공동부모회 및 송년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북부지역위원회 소속 탁아소는 그동안 교사의 잦은 교체로 논의 및 지역모임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성공회,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파를 가진 탁아소들의 특성으로 인해 논의 및 행사, 모임 등의 어려움이 있다.◎

연합회 소식

▲1. 동계 수련회

90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천 소재 작은 자리에서 제 8회 동계 수련회를 가졌다. 전체 회원 중에서 72명이 참가하여 오랫동안 만난 기쁨과 그 동안의 답답했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수련회 일정은 첫날에 친목 프로그램, 그리고 둘째날 올바른 탁아운동론의 정립에 대한 발제와 토론, 탁아입법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를 했으며 뒷풀이 시간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특히 탁아 운동에 대한 선·후배의 열띤 토론은 향후 탁아운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평가중 공통적인 것은 식사시간이 즐거웠다는 것이다.

▲2. 제 5 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25일 합정동 협동 교육원에서 제 5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89년 회기의 사업보고 및 승인, 감사보고, 재정보고 및 결산승인과 회칙개정 그리고 90년 사업계획보고 및 승인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90년도 새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그 결과 회장에는 삼양동 어린이 사랑방의 김경태 선생님, 부회장에는 구로 놀이방의 최현숙 선생님이 선임되었다. 또한 총회가 끝난후 “탁아법 쟁취 투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3. 혜영, 용철이의 넋을 기리는 제

3월 25일 3시에 당산동 성문밖 교회에서 탁아소 어머님들과 각 단체에서 오신 500명의 추모객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일년간 사이 질식사한 혜영, 용철이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를 가졌다.

위령제는 김경태 회장님의 탁아문제에 관한 강연, 여성 민우회와 정태춘씨의 추모곡 그리고 넋풀이와 함께 부모, 교사의 조문이 낭독되었다. 참여하신 추모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원통해 했으며 이 아이들의 죽음이 결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의 문제임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자세로 끝을 맺었다.

▲4. 제 3기 탁아 활동가 교육강좌가 마무리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되었던 제 3기 탁아활동가 교육강좌가 90년 4월 16일 종강하여 1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활동가 훈련의 성격이 강했던 이번 교육강좌는

1 단계 탁아입법, 올바른 탁아운동론의 정립
2 단계 유아기 발달특징, 미술교육, 사회교육, 음악교육, 질병응급처치, 놀이지도
3 단계 회지발행의 의의, 자모회의 방향과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5개월이란 긴 시간을 함께 했던 졸업생들은 평가를 통하여

1. 교육강좌에 참여하면서 탁아운동의 전망과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2. 좀더 적극적인 형태의 강좌가 필요하며
3. 아동교육에 대한 관점을 통일시키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강좌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직접 자모회 운영과 프로그램, 자모들을 대하는 자세 등에 관한 꼼꼼한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으로도 현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내용과 새롭게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좀 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교육의 전문성 확보뿐만 아니라 대중 활동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 남는다.

▲5. 탁아법에 대한 내부 토론회

4월 18일날 여성 민우회 회의실에서 박주현 변호사와 김경태 회장이 발제자로 그리고 박영숙 부총재와 김정자(여성개발원 연구원) 씨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내부 토론회(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의 내용은 김회장의 탁아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과제와 박변호사의 새로운 법안의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박부총재와 김정자씨의 논평과 농촌 탁아와 전교조에서 오신 분이 나름대로의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탁아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한층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6. 문화 소모임이 시작

부모 교육을 위한 공동체 놀이, 민요, 탈춤, 새노래 등을 엮어서 지난 4월 17일 문화 소모임 교육이 시작되었다.

탁아소에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주 2회씩 10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들 스스로 부모회를 이끌어 나가고 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다.

▲7. “새날을 열어갈 우리 아이들” 노래 공연

빈민, 공단지역의 탁아소와 연합회의 기금마련과 어린이들의 올바른 노래 문화의 창조와 보급을 위한 노래 공연이 5월 6일 홍대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에서는 기존의 노래패와 노래꾼은 물론 탁아소의 어린이와 어머니들이 직접 노래를 불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새날을 열어갈 우리 아이들” 공연중
개구장이 어린이방의 노래■

■□ 동요란 □■

바람

김상묵시·백창우곡



왜 눈꽃 핀 건 왜 눈감 자
조신꽃 핀 건 조신감 자
파보나 마나 왜 눈감 자 권태음 글
조신꽃 핀 건 조신감 자 백창우곡



■ ■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

가난한 지역에서 작은 살림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탁아소들이 뜻을 모아 함께 모인 저희 연합회
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자
라나고 아울러 여러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주
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이 저희의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기회원 : 한달에 천원이상

특별회원 : 액수나 정기적인 회비와 관계없이 후
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 항상 일손이 부족한 탁아소에서 함
께 일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나 환
영합니다.

그밖에 장난감, 동화책, 아동복등 무엇이든지
후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행 구좌 국민은행 229-01-0077-545

한일은행 079-01-78565

수취인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발 행 일 : 5 월 26 일

발 행 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편번호 140-160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27-1 호 2 층

TEL. 792-7767

발 행 인 : 김 경 태